

嵯峨面具



江戸末期、嵯峨地区各寺廟分發嵯峨面具作為消災解厄、驅魔避邪的護身符。嵯峨面具在時代變遷中幾度消失、近年又重現世人眼前。製作方式是先以石膏打出雛形、再反覆糊上多層和紙、打底後的面具再以彩色顏料等多次堆疊上色、顯現色彩。

江戸時代 1603-1868

製作：京都市

嵯峨面具



江戸末期、据说在嵯峨的神社寺庙发放作为消灾辟邪护身符的面具。虽然随着时代变迁、面具也不知不觉消失了踪迹、但近年来又使其重获新生。在石膏做的雏形上粘贴多层日本纸、并在上了底色的面具上用色笔反复涂刷制成彩色。

江戸时代 1603-1868

制作：京都市

사가 탈



에도시대 말기, 귀신이나 마귀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사가의 신사나 절에서 나누어 주었다고 전해지는 사가 탈.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라져 갔지만 근래에 다시 부활하였다. 석고로 뜬 hina 틀에 일본종이를 겹쳐 붙이고 색 물감을 수차례 발라 채색한다.

에도시대 1603-1868

교토시 제작

Saga-men (Mask)



These masks were given out by shrines and temples in Saga as charms or amulets to ward off ill fortune. They disappeared for a while with the changing of the times, but they have recently had a revival. Washi paper is shaped against a plaster model, and then after a coat of primer, the mask is colored with many layers of paint.

Edo period 1603-1868

Produced by City of Kyoto